



# 뜨거운 유부녀와 권태로운 기혼자

오재호/극작가 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

“채팅에서 만나서 며칠만에 정을 통했습니까?” “일주일만에”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요즘 말썽 많은 사이버 불륜의 현장입니다. 32세의 젊은 유부녀 K씨 “뜨거운 유부녀”는 여지없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그녀와 정을 통했던 38세의 P씨 “권태로운 기혼자” 역시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위자료 5천만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왜 낙태를 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뜨거운 유부녀”의 양심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술집이나 호텔 등등 은밀한 장소가 외도의 현장이 되다보니 약간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채팅만 해도 빠르고 노골적이며 신비하기까지 한 통로가 훤히 열려있다 보니 정을 통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가장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컴퓨터 통신서비스 라인이 “뜨거운 유부녀”와 “권태로운 기혼자”라는 대화방입니다. 또 그들이 정을 통하는 현장은 자동차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는 저마다 피임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낙태 바람은 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선남선녀(?)는 피임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밝혀진 바 있지만 현행 낙태수술의 86.6%가 불



법이랍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산모의 건강이 의심스럽거나 혹은 기형아 출산, 임신 중 약물복용, 방사선 노출, 강간에 의한 임신 등등의 이유가 있을 때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낙태를 줄줄이 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큰일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여성 중 61.3%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76.6%가 “뜨거운 유부녀”와 “권태로운 기혼자”와의 관계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잡아 “뜨거운 유부녀”가 무려 30%는 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누군가는 30%라는 통계도 <잘 봐준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 근후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기회가 닿으면 나도 외도할 수 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응답한 여성이 무려 54.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모두가 자숙해야 합니다.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목소리로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몇몇 사람이 나서서 채팅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의식이라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열두번 바뀐다고 해도 어머니가 당신의 자식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죽일 때는 인류의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PPFK